

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: 2011 한국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

최인재 연구위원 · 모상현 부연구위원

Vol.4 2012. 07.

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

: 2011 한국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

개요

| 조사목적 |

- ▶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주거 및 여가 환경의 개선은 삶의 만족도를 높였고, 각종 질환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였음.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해환경과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- ▶ 이에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·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,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아동·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의 방향성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

| 조사대상 |

- ▶ 전국 16개 시·도의 초등학교 4~6학년(2,943명), 중학교(2,844명) 및 고등학교(3,648명) 1~3학년 학생 총 9,435명(남자: 4,874명, 여자: 4,561명)

| 조사방법 |

- ▶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

| 조사기간 |

- ▶ 2011년 6월 ~ 7월

2011 한국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



● 급급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 수준 악화

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요소는 점수가 높아졌고,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, 정서조절, 낙관주의 등 긍정적 요소의 점수는 낮아졌음.

성별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, 정서조절 및 낙관주의 등 개인 내 적응적 심리 요인에 대한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.

[표1]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요인별 차이 분석

응답자의 특성		죄책감 /자기혐오		부정적 자기상 /정신운동지연		신체적 측면		정서적인 표현 /부정적 인지		우울(전체)	
	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
성 별	남자 (n=4,874)	0.37 (0.43)	-8.430 ***	0.40 (0.43)	-5.161 ***	0.36 (0.37)	-3.202 ***	0.41 (0.45)	-13.753 ***	0.38 (0.35)	-9.220 ***
	여자 (n=4,561)	0.44 (0.45)		0.44 (0.45)		0.38 (0.35)		0.55 (0.51)		0.45 (0.37)	
교 단 별	초등학교 (n=2,943)	0.28 (0.38)	209.081 *** (ab,ac, bc)	0.31 (0.40)	151.176 *** (ab,ac, bc)	0.30 (0.35)	124.069 *** (ab,ac, bc)	0.35 (0.44)	192.560 *** (ab,ac, bc)	0.30 (0.33)	250.371 *** (ab,ac, bc)
	중학교 (n=2,844)	0.42 (0.44)		0.43 (0.43)		0.36 (0.35)		0.48 (0.47)		0.42 (0.36)	
	고등학교 (n=3,648)	0.49 (0.46)		0.50 (0.45)		0.44 (0.37)		0.58 (0.50)		0.50 (0.37)	
전체 M(SD)		0.40(0.44)		0.42(0.44)		0.37(0.36)		0.48(0.48)		0.41(0.36)	

*p<.05, **p<.01, ***p<.001

*주: a=초등학교, b=중학교, c=고등학교, d=서울, e=광역시, f=시·군, g=양부모가정, h=한부모가정, i=조손가정

[표2]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요인별 차이 분석

응답자의 특성		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		주관적 불안요인		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		공황적 불안요인		불안(전체)	
	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
성별	남자 (n=4,874)	0.39 (0.39)	-3.876 ***	0.38 (0.48)	-9.063 ***	0.53 (0.47)	2.843**	0.23 (0.39)	-4.523 ***	0.38 (0.35)	-5.492 ***
	여자 (n=4,561)	0.43 (0.41)		0.47 (0.54)		0.51 (0.49)		0.27 (0.41)		0.42 (0.39)	
교육 단계	초등학교 (n=2,943)	0.29 (0.35)	207.577 *** (ab,ac, bc)	0.31 (0.44)	156.565 *** (ab,ac, bc)	0.43 (0.44)	98.150 *** (ab,ac, bc)	0.18 (0.34)	75.791 *** (ab,ac, bc)	0.30 (0.33)	201.385 *** (ab,ac, bc)
	중학교 (n=2,844)	0.43 (0.40)		0.42 (0.49)		0.51 (0.48)		0.25 (0.40)		0.41 (0.36)	
	고등학교 (n=3,648)	0.49 (0.42)		0.52 (0.55)		0.60 (0.50)		0.30 (0.44)		0.48 (0.40)	
전체 M(SD)		0.41(0.40)		0.43(0.51)		0.52(0.48)		0.25(0.40)		0.40(0.38)	

*p<.05, **p<.01, ***p<.001

*주: a=초등학교, b=중학교, c=고등학교, d=서울, e=광역시, f=시·군, g=양부모가정, h=한부모가정, i=조손가정

[표3] 개인 내(內)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

응답자의 특성		자아존중감		자기효능감		정서조절		낙관주의		개인내(內) 적응적 심리요인(전체)	
	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
성 별	남자 (n=4,874)	3.13 (0.72)	3.267**	3.15 (0.68)	4.969 ***	2.79 (0.77)	11.329 ***	2.96 (0.72)	5.423 ***	2.96 (0.64)	8.281 ***
	여자 (n=4,561)	3.08 (0.70)		3.08 (0.67)		2.61 (0.77)		2.88 (0.71)		2.86 (0.64)	
교 육 단 별	초등학교 (n=2,943)	3.24 (0.77)	79.822 *** (ab,ac)	3.33 (0.69)	239.890 *** (ab,ac, bc)	3.07 (0.78)	599.390 *** (ab,ac, bc)	3.20 (0.75)	365.847 *** (ab,ac, bc)	3.20 (0.67)	502.432 *** (ab,ac, bc)
	중학교 (n=2,844)	3.07 (0.70)		3.05 (0.68)		2.65 (0.72)		2.85 (0.69)		2.85 (0.61)	
	고등학교 (n=3,648)	3.03 (0.65)		2.99 (0.63)		2.45 (0.70)		2.75 (0.64)		2.72 (0.57)	
전체 M(SD)		3.11(0.84)		3.11(0.68)		2.70(0.78)		2.92(0.72)		2.91(0.64)	

*p<.05, **p<.01, ***p<.001

*주: a=초등학교, b=중학교, c=고등학교, d=서울, e=광역시, f=시·군, g=양부모가정, h=한부모가정, i=조손가정

‘학업’ 스트레스 가장 높고, 교급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수준 증가

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업관련 스트레스(M=2.71)가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진로(M=2.35), 외모(M=2.22), 부모와의 관계(M=2.11)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.

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고, 교급별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[표4] 스트레스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

요인	문항		평균	표준편차
스트레스	4위 1	부모님과의 관계	2.11	0.97
	2	형제·자매와의 관계	1.98	0.99
	3위 3	외모(키, 몸매, 생김새 등)	2.22	1.00
	4	신체건강	1.71	0.89
	5	심리건강	1.71	0.92
	6	가정형편(경제적 문제)	1.65	0.88
	7	친구와의 관계(친구갈등, 폭력 등)	1.71	0.89
	8	이성과의 관계	1.47	0.79
	9	선·후배 관계	1.33	0.67
	10	선생님과의 관계	1.52	0.84
	2위 11	진로문제(장래 또는 미래)	2.35	1.16
	1위 12	학업문제(시험, 성적문제 등)	2.71	1.11
스트레스 요인(전체)			1.87	0.58

[표5]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항목별 차이 분석

응답자의 특성		학업문제		진로문제		외모		전체	
		<i>M</i> (<i>SD</i>)	<i>t, F</i> (Sheffé)	<i>M</i> (<i>SD</i>)	<i>t, F</i> (Sheffé)	<i>M</i> (<i>SD</i>)	<i>t, F</i> (Sheffé)	<i>M</i> (<i>SD</i>)	<i>t, F</i> (Sheffé)
성별	남자 (n=4,874)	2.56 (1.13)	-13.767 ***	2.23 (1.15)	-10.430 ***	2.00 (0.97)	-22.767 ***	1.78 (0.56)	-15.882 ***
	여자 (n=4,561)	2.87 (1.06)		2.47 (1.16)		2.46 (0.98)		1.97 (0.59)	
교급별	초등학교 (n=2,943)	2.03 (1.07)	1032.445 *** (ab,ac,bc)	1.46 (0.83)	2154.778 *** (ab,ac,bc)	1.80 (0.96)	492.830 *** (ab,ac,bc)	1.57 (0.55)	741.797 *** (ab,ac,bc)
	중학교 (n=2,844)	2.89 (1.02)		2.41 (1.08)		2.26 (0.98)		1.91 (0.54)	
	고등학교 (n=3,648)	3.13 (0.93)		3.02 (0.95)		2.54 (0.93)		2.08 (0.53)	
전체 M(SD)		2.71(1.11)		2.35(1.16)		2.22(1.00)		1.87(0.58)	

*p<.05, **p<.01, ***p<.001

*주: a=초등학교, b=중학교, c=고등학교, d=서울, e=광역시, f=시·군, g=양부모가정, h=한부모가정, i=조손가정

‘게임 중독’ 중학생 때 가장 높다

게임 중독의 경우 중학생의 게임 중독 평균 점수(M=1.28)가 초등학교(M=1.19)이나 고등학교(M=1.24)보다 더 높았고, 통계적으로도 교급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(F=46.953, $p<.001$).

게임 중독에 대한 성별 결과를 보면, 남학생들의 평균 점수(M=1.33)가 여학생들의 평균 점수(M=1.14)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음($t=28.287$, $p<.001$).

가족구성에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(M=1.30)이 양부모가정(M=1.23)이나 한부모가정(M=1.29)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,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간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(F=5.002, $p<.01$).

[표6]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의 요인별 차이 분석

응답자의 특성		게임 지향적 생활		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		게임 금단과 정서경험		게임 중독 (전체)	
	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	M (SD)	t, F (Sheffé)
성별	남자 (n=4,874)	1.32 (0.45)	18.865 ***	1.43 (0.54)	27.491 ***	1.25 (0.42)	26.132 ***	1.33 (0.41)	28.287 ***
	여자 (n=4,561)	1.17 (0.34)		1.17 (0.37)		1.07 (0.22)		1.14 (0.26)	
교급별	초등학교 (n=2,943)	1.22 (0.42)	18.759 *** (ab,bc)	1.23 (0.43)	62.852 *** (ab,ac,bc)	1.14 (0.35)	28.086 *** (ab,ac,bc)	1.19 (0.34)	46.953 *** (ab,ac,bc)
	중학교 (n=2,844)	1.28 (0.43)		1.36 (0.51)		1.21 (0.38)		1.28 (0.38)	
	고등학교 (n=3,648)	1.23 (0.38)		1.33 (0.50)		1.16 (0.33)		1.24 (0.35)	
가족구성	양부모가정 (n=8,513)	1.24 (0.40)	6.353*** (gh)	1.30 (0.48)	4.683** (gh)	1.16 (0.35)	2.407	1.23 (0.35)	5.002** (gh)
	한부모가정 (n=743)	1.31 (0.46)		1.37 (0.53)		1.20 (0.39)		1.29 (0.39)	
	조손가정 (n=82)	1.34 (0.52)		1.39 (0.54)		1.23 (0.41)		1.30 (0.38)	
전체 M(SD)		1.25(0.41)		1.31(0.48)		1.17(0.35)		1.24(0.36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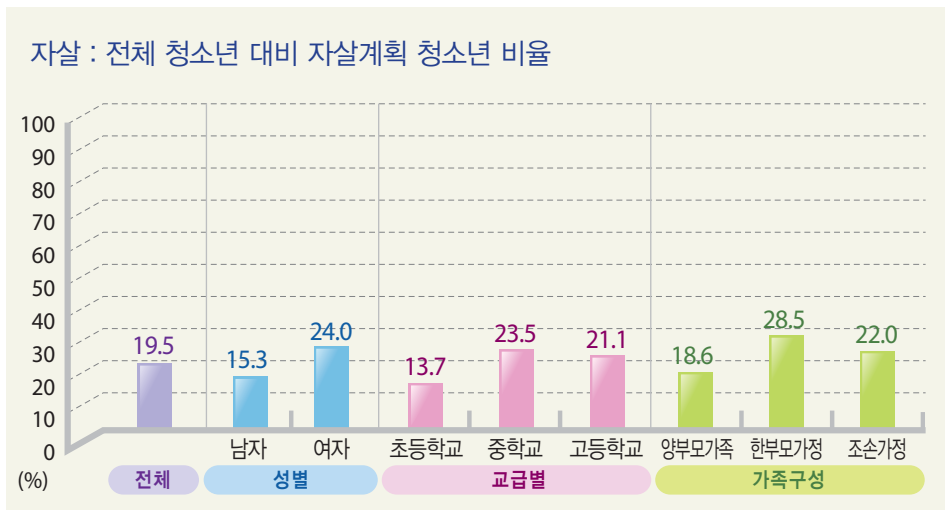
* $p<.05$, ** $p<.01$, *** $p<.001$

*주: a=초등학교, b=중학교, c=고등학교, d=서울, e=광역시, f=시·군, g=양부모가정, h=한부모가정, i=조손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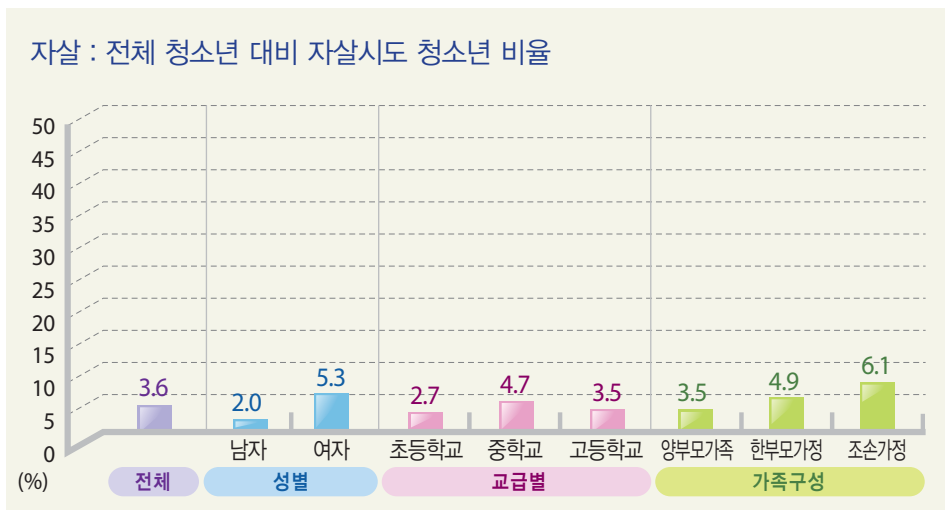
● 자살계획 청소년 비율 19.5%, 자살시도 청소년 비율 3.6%

최근 1년간 자살계획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19.5%로 나타났음.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(15.3%)에 비해 여학생(24.0%)의 비율이 더 높았고, 교급별 결과에서는 중학생(23.5%)이 초등학생(13.7%)이나 고등학생(21.1%)에 비해 더 높았음. 가족구성에서는 한부모가정 청소년(28.5%)이 가장 높았음.

최근 1년간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3.6%로 나타났음. 성별 비교 분석 결과 자살계획과 마찬가지로 여학생(5.3%)이 남학생(2.0%)에 비해 더 높았고, 교급별에서는 중학생(4.7%)이 초등학생(2.7%)이나, 고등학생(3.5%)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 가족구성에서는 조손가정 청소년(6.1%)이 가장 높았음.



[그림1]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자살계획 청소년 비율



[그림2]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자살시도 청소년 비율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

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/10층

114 Taebongro, Seocho-Gu, Seoul 137-715 Korea

Tel. 02-2188-8800 Fax. 02-2188-8869 www.nypi.re.kr

